

인공위성이용 항공통신 시스템 도입키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공통신 항행안내 및 감시시스템이 도입돼 항공기 운항시간이 단축되고 공항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29일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공항 및 항로의 항공기 처리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위성항행시스템(CNS/ATM)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항행시스템은 △관제통신 △이착륙통제 △운항상황 파악 업무등을 인공위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등에서 이미 실용화했거나 시범운용중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최적항로 안내가 가능해져 운항시간이 5~10% 단축되며 관제업무도 음성대신 문자자료로 처리, 조종사-관제사간의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활주로 1개당 3만여평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계기착륙시설은 물론 항공기 감시범위가 최대 2백마일에 불과한 레이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천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건교부 한국항공공단 항공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건교부는 우선 내년에 5억~6억원을 들여 전세계 항공기의 운항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항행감시시스템(ADS)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문가3명을 초청, 5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벨기에, 한국과 항공 노선 개설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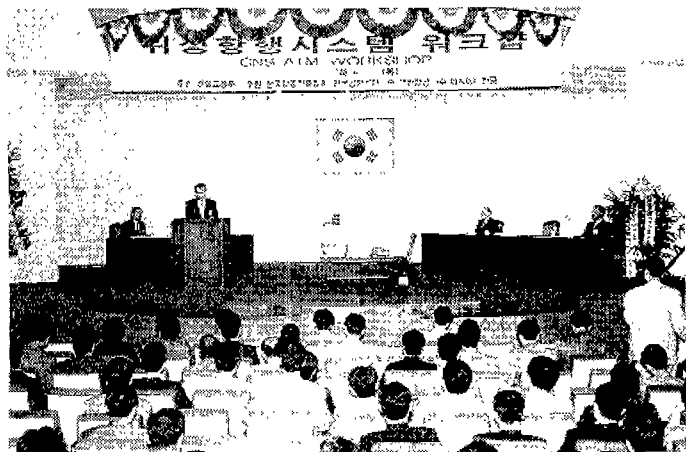
서울과 브뤼셀을 잇는 정기항공노선이 올해 안에 처음으로

개설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월 22~23일 이틀 동안 브뤼셀에서 한-벨기에 항공회담을 갖고 정기노선 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나라는 한국쪽 항공사의 노선은 '한국내 여러 지점~유럽내 중간 2개지점~벨기에내 여러 지점~유럽내 이원 2개 지점'으로 하되, 중간·이원지점에서 모스크바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벨기에쪽 노선은 '벨기에내 여러 지점~아시아내 중간 2개 지점~한국내 여러 지점~아시아내 이원 2개 지점'으로 하되, 베이징은 중간·이원지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정 항공사는 두나라 모두 복수제로, 운항횟수는 기존의 제한없이 매주 여객기 2회,



위성항행시스템 워크숍

화물 1회로 정해졌다.

■ 광주-강릉, 제주-예천 간 항로 신설

7월중에 광주-강릉, 제주-예천 간 항공노선이 신설되고 서울-포항등 5개 노선에 모두 6편의 항공편이 늘어날 예정이다.

6월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광주-강릉, 제주-예천간에 하루 1회씩 항공노선을 신설하고 서울-포항간 노선에 2편을 증편하는 한편 서울-대구, 서울-사천, 서울-예천, 부산-강릉에는 1편씩 증편하는 등 모두 5개 노선에 6편을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말까지 노선을 배분해 7월부터 이들 노선에 항공기 운항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원주공항청사 7월 착공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영서지역 1백만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민항원주공항 청사 신축공사가 오는 7월 착공된다.

원주~제주간 민항기 운항을 추진해 온 원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3월 공항관리공단에 용역을 준 민항 원주공항 청

사설계가 오는 7월 20일 납품도 록 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은 7월중에 공항청사 신축공사를 착공, 내년 상반기에 개청키로 했다.

민항 원주공항은 군부대의 협조로 군 비행장 활주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류장을 활주로 인접지역에 신설하며 군부대 밖에 6천~7천여㎡의 부지를 확보해 공항 청사를 신축해 셔틀 버스로 승객을 수송할 계획 이다.

민항 원주공항은 내년 하반기 부터 원주~제주간을 하루 2~3회 운항하는 한편 부산 등 국내 다른지역의 운항도 계획하고 있다.

■ 김해등 군비행장 7곳 민항기 증편

국방부는 6월 8일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중인 김해, 광주, 대구, 포항, 강릉, 예천, 사천 비행장등 7개 군비행장의 민간항공편을 빠르면 7월부터 하루에 모두 10편 늘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등 10개 군비행장에 는 하루 1백47편의 정기민항기 가 운항중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건설 교통부의 증편 요청에 따른 것으로 10편이 증편될 경우 하루 최대 4천여명의 승객이 추가로 군비 행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제주경찰항공대 출범

제주경찰항공대(대장황영호경감)가 15인승 중형쌍발헬기 1대를 도입해 5월15일 제주국제공 항에서 최기호제주경찰청장 등 관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 했다.

미국 벨사에서 제작된 이헬기는 최대속도가 시간당 2백40km 로 4시간반동안의 체공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산악 해상등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의 인명구조활동과 범죠탈압에 활용된다.

■ 아시아나, 항공기 2대 도입

아시아나항공(대표 박삼구)은 5월 22일 B737-500기 1대를 도입한데 이어 23일 B767-300기 1대를 도입, 전체 항공기 보유대 수를 33대에서 35대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데이콤, 마일리지 업무 제휴

아시아나항공(대표 박삼구, 좌 3번째)과 데이콤(대표 손익수)이 6월 15일 서울 조선히텔에서 "마일리지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시아나 보너스클럽과 데이콤 전화카드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가입 축하기념으로 5백마일을 제공받는다. 또 데이콤 전화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입시 지정한 전화로 국제전화(002)를 걸면 매월 사용액에 대해 5천원당 10마일씩을 제공받게 된다.

일본항공, 에어프랑스와 제휴 확대 합의

일본항공과 프랑스의 에어프랑스는 제휴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6월 1일 부관 에어프랑스 회장 등이 일본을 방문, 발표하게 된다. 작년에 시작한 오사카-파리선 공동운항과 함께 탑승거리에 따라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FFP(프리퀀트 프라이어 프로그램)협력관계를 맺는다.

일본항공은 FFP에서는 작년

가을, 아메리칸항공과도 제휴해 미국과 유럽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보잉 777 여객기 첫 상업비행

세계 최대규모의 쌍발엔진 제트기인 보잉 777-200의 첫 상업비행이 6월 7일 런던-워싱턴 노선에서 이뤄졌다.

미 유나이티드항공 921편(위킹 투게더)은 이날 대부분이 이번 처녀 상업비행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과 유나이티드항공 중역, 비행기광등인 승객들을 위해 샴페인 파티를 연 뒤 영국 히드루공항을 이륙했다.

보잉사가 50억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대당 가격 1억2천만달러의 이 최첨단 광폭 여객기는 3등 좌석의 수가 292개로 각 좌석마다 위성전화와 팩스-모뎀을 설치했다.

미-유럽 공중개방협정 곧 체결

미국과 9개 유럽국가는 상호간의 여객기 운항을 자유화하는 이른바 '공중개방'협정을 6월중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페 데리코 페나 미교통장관이 6월7일

밝혔다.

페나장관은 이날 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운수장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공중개방'협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9개 유럽국가와 미국간에 곧 공식 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페나장관은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종적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6개 유럽연합 국가와 3개 비유럽연합 국가는 금년초 미국과, 상호간의 항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중개방'협정에 가서 명했었다.

가서명된 이 협정은 각국의 항공사가 자국 및 제3국에서 상대국의 어느 지점까지든, 그리고 상대국에서 제3국의 어느 지점까지든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